# 고은 불교대하소설

## 배 한척 건너오다

지진이 지나간 며칠 뒤로 벌써 지진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의 고통을 잊어버린채 갓난아기의 콩알이에 한없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것과도 닮은 그런 망각이었을까.

사람의 기쁨 대신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일상이야말로 더많은 두려움이나 아픔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인지 모른다.

대해가 차츰 섬의 도량에서 그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인담이 어린 행자 우식과 만우에게 글을 가르친다면 대해는 그 아이들을 섬의 숲이나 파도가 몰려와 물기둥을 만들어 솟아오르다가 부서지는 절벽 끝에 데리고 다니며 세상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니 그는 심지어 옛 조사(祖師)의 글 따위도 비웃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천년전의 헛소리를 뭣하러 배운단 말이야. 이렇게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파도소리이면 그것이 참된 소리일 터이지."

그러자 우식행자가 그 말을 받았다.

"파도소리도 천년 전부터 들리던 그 소리 아닙니까?"

"이놈아 그때 네 귀가 듣고 있었더냐?"

"천년전에요?" 라고 우식이 곰곰히 생각하는 척 하다가 "그래요. 그때 저는 박새 한마리였어요. 새한테도 귀가 있으니까요."

"요놈이 나를 머리로 들이받은 걸 보니… 너는 새보다 불달린 황소였겠구나."

"음매" 하고 우식이 황소 울음소리를 흉내냈고 만우가 그런 우식의 등짝에 냉큼 올라탄 뒤 "이라! 이라! 이놈의 망아지야" 하고 얼러댔다.

대해는 그런 두 행자의 장난에 깜짝 놀랐다. 이 어린 녀석들이 그저 어린 녀석만이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인담선사가 얘기한 적이 있던 당나라 초기 천태산 산중으로 숨어버린 한산(寒山) 습득(拾得)의 후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천태산 국청사(國淸寺)는 진작 수나라 천태종의 지의(智顗)에 의한 법화경의 영향을 받은 이래 남종선(南宗禪)의 은자(隱者)들이 드나들기도 하는 절이었다.

그 절 풍간(豊干)선사가 한산 습득을 가르쳤으나 그 가르침이란 것도 검불로 여겨 새들이 검불 둥지를 떠나 날라가버린 터였다. 혹은 구름 속에 숨고 혹은 숲속의 메아리가 되었다.

다만 그들인지 누구인지가 나무 줄기에 시를 쓰거나 산채 흙담에 시를 써 남긴 것이 뒷날 한산시로 남겨진 것이다.

그 한산 습득은 어지간히 늙은 장난꾼들이었으나 천년 세월의 이쪽 무욕도에 살고 있는 우식 만우는 어린

> 무욕도 섬 전체가 사람기운으로 충만했다
> "손님들이 아니라 식구가 늘었어"

이들이었다.

이런 어린 행자들에게 인담이 풍간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대해는 숫제 천태산의 구름과 안개노릇을 하고 있었다.

며칠동안, 음력 7월의 칠석(七夕)을 지난 뒤 햇빛은 저혼자 청명한 하늘과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 심리 밖에서 앓고 있는 병자의 그 아픔까지도 다 비춰 보여줄 것 같은 햇빛이었다.

그런 햇빛 아래 세상은 고즈넉하였다. 대해가 우식 만우를 데리고 섬의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곳에 가만히 흐르고 있는 바람에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 대해의 눈길이 바다의 한 곳에 머물었다.

"배로구나."

"네?"

"네?" 하고 행자들도 까치발로 나무 사이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조용해야 한다…내려가 보자."

대해가 행자들을 뒤따르게 하고 이제까지 마음놓고 있던 천연스러움을 거두어들였다. 짐승이 낯선 짐승을 발견한 것처럼.

그들은 중턱쯤의 능선에서 멈췄다. 배는 틀림없이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도 돛이 두폭이나 되는 규모였고 그 배에는 서너사람이 배 앞쪽에서 섬 전체를 살피고 있는 것 같았다.

대해로서는 그런 배에 대한 경험이 많았으므로 배의 정체가 궁금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해적선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안심시켰다. 아니 해적선이라 해도 이 섬에 들이닥쳐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 달빛은 밝고 밤배는 그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갈 것이 아닌가.

그것도 아니었다. 우녀나 소석행자 같은 여자를 잡아다가 송나라 장강 남쪽의 포구에 팔아넘길 수도 있다는 가정도 없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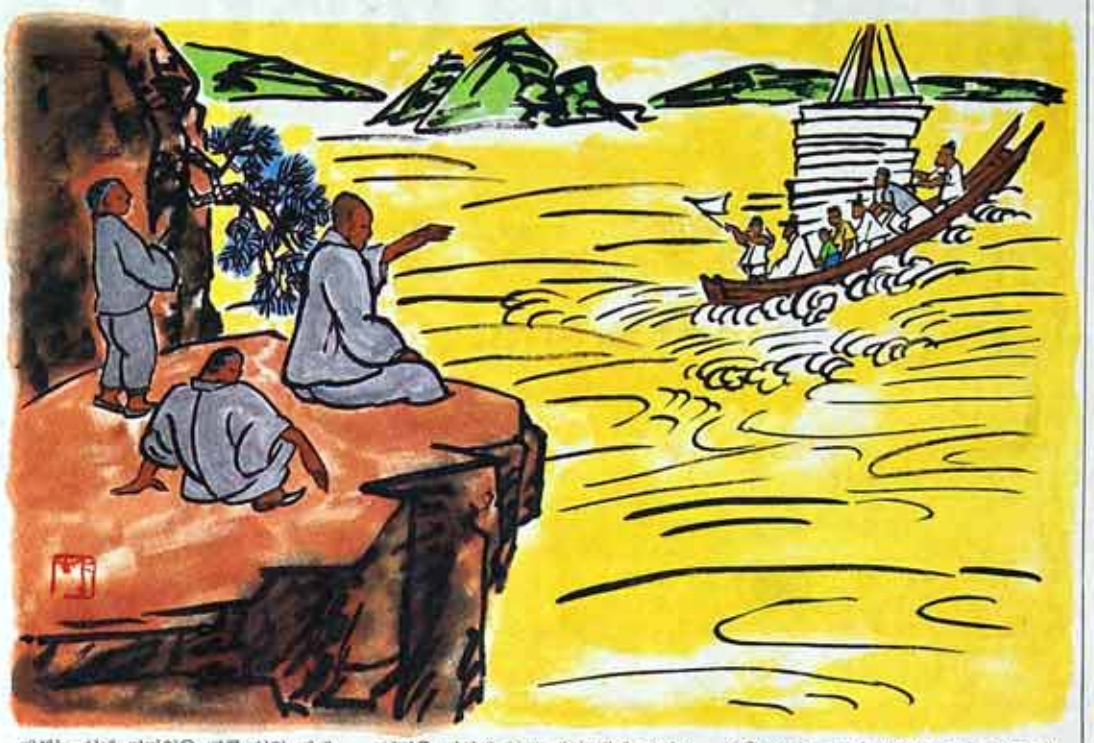
어쨌거나 별다른 술책이 아니면 해적선에는 반드시 그들의 권위를 과시하는 검정이나 빨간의 깃발을 날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 깃발 바탕 위에 반드시 해골이나 칼을 그려넣기 마련인데 어떤 것은 조각달이나 용을 그려놓은 것도 있었다.

"어어!" 하고 배 위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났다.

그들은 무욕도에 사람이 있는가를 알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배는 남쪽 바닷가에 자어진 세채의 도량들을 볼 수 없는 북쪽이었으므로 섬의 형편을 모르고 있었다.

"여어!"

"여어."



대해는 섬에 가까워온 배를 섬의 때배 선착장 쪽으로 방향을 돌리도록 하였다. 배 위에는 사람이 일곱사람이나 갑판 위에 나와 있었다. 뱃사람 차림이 아닌 사람이 셋이었다.

배는 암벽이 북쪽을 막고 울을 친 것 같은 선착장으로 들어왔다. 그 배로 하여금 무욕도가 더욱 당당한 곳으로 보이기까지 하였다.

"저희들은 인담대사를 찾아왔습니다" 하는 선장으로 보이는 젊은 수염의 중년남자의 말이 우렁찼다.

"예성강 회회포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인담은 나서지 않고 대해 뒤에 가만히 있었다.

"저희들은 이곳에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곡식과 그밖의 물자들을 배에 가득 싣고 왔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도 당분간 쓸 물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럴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곳의 샘물은 맑군데가 됩니다" 라고 대해가 말하였다.

"아무튼 어서 내려오시지요" 라고 그들을 받아들였다.

선주 말고 사공 몇과 중년남자 둘과 처녀 하나였다.

그들이 무욕도에 발을 디딘 다음 배는 닻 말고도 굵은 밧줄로 배의 몇군데와 섬의 바위너설에 매어 고정시켜 놓았다. 그런 다음 배 안의 물자를 널판을 오르내리며 옮기는 사공 세 사람을 남겨두고 도량 쪽으로 넘어갔다.

갑자기 섬 전체가 사람기운으로 충만하였다.

"손님들이십니다" 라고 만우행자가 말하였다. 소석행자도 눈을 크게 뜨고 "뭔 손님들일까?" 하고 중얼거리는데 우녀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말을 고쳐주었다.

"손님들이 아닌 것 같네. 식구가 늘었어."

인담과 대해가 선주를 데리고 법당겸 선방으로 쓰는 곳으로 들어갔다.

인담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곳에 온 사람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해가 선주에게 절을 하라고 일렀다. 선주는 인담에게 절을 한 뒤 대해에게도 절을 하려고 하자 대해가 그만두라고 하였다.

"꿈에 뵈온 모습 그대로이십니다."

"……."

"실례이옵니다만… 꿈속에서… 한번은 대사께서 옷을 벗으시고 폭포에서 물을 맞으셨는데… 가슴에 점이 여섯개나 있었습니다."

이 말에 인담은 놀랐다. 바로 그의 가슴 아랫쪽에 여섯개의 좁쌀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 선주의 영기(靈氣)가 상당한 것을 알만하였다.

인담이 입을 열었다.

"내가 인담이오만."

## "대사님! 꿈속에서…가슴에 점이 여섯개나…" 인담은 놀랐다

그때 인담도 행자들과 함께 넘어와서 대해와 함께 선착장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어떤 영문인가 하고 있었다.

배에서 선장이 먼저 내렸다. 닻을 내린 뒤 뱃머리에서 길다란 널을 뭍에 걸쳐놓아 그곳으로 내린 것이다.

대해가 먼저 물었다.

"선장이십니까?"

그가 공손하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배 임자입니다."

"그렇다면 회회포의 부자로군요" 라고 대해가 잘 짐작하고 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거듭 말하였다.

"인담대사께서 정녕 이곳에 계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저 찾아왔습니다. 그분을."

"……."

"대사님!" 하고 선주가 깊은 경의를 내보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가 제정신이 아니게 줄줄 입에서 말이 나왔다.

"저는 회회포에서 배 일곱척을 부리는 선주 곽일우의 막내이옵니다. 이름은 효영(曉永)이라 하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몹시 앓았습니다… 그렇게 앓는데 이따금 제가 알지 못하던 고조할아버님도 나타나고 백제의 어떤 왕도 나타나고 하다가 고려의 노승도 나타났습니다. 그 노승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서 거기 폭포 언저리에 오두막을 짓고 사는 대사님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대사님이 바다위로 걸어가셔서… 한 무인도에 계셨습니다."

"……."

그림 · 조향숙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황토로 만든"
가정용 전통 쑥 좌욕기 "탄 생"

**당신의 건강진단서, 이상 없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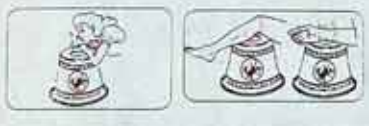
냉이 심하다, 가끔 하혈을 한다. 월경불순과 월경통이 빈번하다.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 치질때문에 고통스럽다. 혹시 자궁암에 걸린것은 아닐까? 이런 근심, 걱정, 전통 쑥 좌욕기를 만나는 즉시 말끔히 해소됩니다. 하루 30분씩 전통 쑥 좌욕기에 앉아만 있어도 하혈 장기질환이나 모든 자궁병 질환은 저절로 치유되고 예방되기 때문입니다.

**"전통 쑥 좌욕기로 치유되는 질병 사례들"**

· 전통 쑥 좌욕은 이런 병들을 치유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여성** 무인병, 냉 · 대하, 변비, 치질 월경불순, 월경통, 질염, 요도염, 방광염, 자궁근종, 자궁암, 불임증, 산후통, 산후조리, 월수출자통, 임증 및 합병증환자, 배가 냉한사람, 성사가 심한사람, 노폐물제거, 기미 · 여드름 방지, 전신피로, 배 · 가슴 군살제거 생년기장애 등

**남성** 치질, 전립선염, 비대증, 전립선암, 조루증, 정력감퇴 발기부전, 변뇨, 전뇨, 소변곤란, 배뇨통 등



★ 얼굴 피부가 거친분, 여드름 기미가 많은 분은 얼굴을 화대위에 놓고 발정하십시요. 피부가 훈택해지고 여드름, 기미가 제거됩니다.

★ 팔, 다리에 신경통, 관절염, 마비증상이 있는 분은 아픈부위를 화대위에 올려놓고 황토, 쑥찜질을 하십시요. 놀랄만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 료 원 리**

여성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질병은 태수동지일에 생각했던 시소한 자궁질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궁절제수술과 낙태, 무분별한 성생활, 냉방에 거처하여 몸을 차게 한것과 또한 수세식변기를 주로 사용하는 현대인에게는 그곳에서 나오는 수분과 습기의 영향을 장기간 받게되어 냉증, 생리불순이 많이 생기고, 여성에게 오래되면 혼갑 부인병과 자궁암, 허리요통을 유발하고 신경, 대장, 간까지 나빠지며 협착순환까지 장애를 받아 나아들면 만성 신경통, 관절염의 원인제공이 되고있습니다. 전통쑥좌욕기는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안에 약쑥의 탁월한 효능과 황토의 신비한 약성과 기적의 치유력을 나타내는 원적외선의 심달력이 삼위일체로 합체된 인체조직 과괴와 위험없이 신체심부까지 골고루 깊숙이 스며들어 자궁을 냉한것으로부터 항상 따뜻하게 보호하고 정결하게 소독시키며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병균을 살균시켜 온갖 부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을 미리 치료예방시키고 현재 질병을 앓고있는 여성에게는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성이 있는 집이면 어느 집이고 필수적으로 한대씩 구비해야 할 필수품입니다.

**전통 쑥 좌욕기란?**

하복장기질환인 자궁병, 냉 · 대하, 치질, 변비, 방광염, 전립선염등을 치유시키는데 그 어떤 방법보다도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던 옛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담은 전통적인 세가지 재래식 치료요법을 그대로 살려 이 세가지 치료요법이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병합되어 나올 수 있도록 개발된 것으로 좌욕기 구성요인 각각마다 자체에서 발생되는 약성이 최대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질병에 대한 치유효과를 극대화시킨 가정용 좌욕찜질 요법기입니다.

**특징 및 구성요인**

① 화대 (좌욕대) : 황토를 주원료로한 무정 자기로 화대를 만들어 뜨거운 열을 받으면 황토의 신비한 약성효험이 더욱크게 작용하는 황토의 특성을 살려 황토기운을 자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오는 영향으로 화대가 뜨겁게 되므로서 황토방에서 불편 황토구들자위에 앉아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② 내열탕기 : 질병에 대해 기적의 치유효과를 나타내는 원적외선이 많이 방출되도록 바이오 세라믹이 80%이상 다량 함유된 특수 도자기(陶器)로 약쑥을 끓이는 내열탕기를 만들었고 뚜껑 씌지 않고 1시간 이상 뜨거운 열을 발산하도록 두껍게 깊고 넓게 만들었습니다.

③ 약쑥 : 쑥은 약쑥중에서도 가장 약효가 좋은 애풀(艾蒿)을 맞으며 강인하게 자란 강화 약쑥만 엄선하여 잘잘해 편리하고, 쑥의 약성분이 잘 우러나올 수 있는 인체에 무해한 종이티백에 넣어서 사용하기가 간편합니다 (100입분)

④ 100%황토가루 : 「본초강목」「동의보감」「향약집성방」등의 의서에 황토가 들어있는 물은 그 약성이 매우 높아 이물을 끓였을때 다른 물질과 섞이면 그 효능을 최상급의 물질로 변화시킨다는 기록에 따라 약쑥의 효능을 배가시키고 황토의 신비한 약성을 받고자 순수 황토가루를 투입토록 하였습니다.

⑤ 내열탕기에 약숙과 황토가루, 볶은소금을 넣고 끓여서 황토방찜대 위에 그대로 올려 놓기만 하면 누구나 1시간 이상을 손쉽게 좌욕을 할 수 있어 편리하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좌욕기 한대로 남녀노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⑥ 오래 앉아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질병치유효과가 크도록 구조 및 규격이 설계되었습니다.

**특별보급 가격 : ₩ 230,000**

※ 본 좌욕기에 대하여 더욱 상세히 아시고자 하는 분은 전화주시면 카다로그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 방법을 다해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 쑥 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 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심장, 저 · 고혈압, 폐결,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경년기 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버짐살, 피부미용, 사춘증진, 알레르기성 체질, 술 · 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항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보급가격: ₩150,000**

전국지회 모집 전국시 · 군 · 구지회 미개설지역 · 방문 및 전화상담

■ 제조원 : 바라밀 건강연구회
●본회 : (지회상담문의)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전화 : 0335)34-9490,39-1906/ 아간(0342)706-3060
서울사무소 : (02)508-3284/5
●본원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한신상가 5동 5층)
대한불교조계종 : 보문포교원(원장 :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 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서울(02) 강동:485—3859 강남:553—0261~2 서초:508—3284~5 송파:417—8922 성북:942—8430 은평:305—2910 도봉:942—8430 종로:747—7033 노원:942—8430 마포:715—2062 강북:994—3108 반포:597—7581 영등포:782—5080
경기지역 : 인천 : 연수구(032)817—1567, 813—8264 의정부:(0351)873—0532, 44—3114 수원:(0331)291—8549 분당:(0347)66—0049 광주:(0347)65—1047 용인:(0335)35—4293 과천:(02)503—9352
부산(051) 부산진구:803—0108 연제구:864—3740
대구(053) 북구·칠곡:323—2598 남구:474—2628
대전(042) 중구:222—4936 서구:534—4211
경남지역 : 마산:(0551)23—9018 창원:(0551)82—0076 진주:(0596):73—0039 울산:(0522)74—7536
광주(062) 동구:228—8544
전북지역:전주:(0652)75—8733
경북지역 : 경주:(0561)772—3255 구미·군위:(0578)83—5308 포항:(0562)82—3155~6
제주도 제주시(064)22—3324
충북지역 제천·단양(0443)46—3023
강원도지역 강릉(0391)645—2117